

집수리 전문자원봉사단 교육 '우리 동네 두빛나래'

✎ 이광일 기자 | ⓒ 승인 2023.11.17 10:56

“재능기부를 통한 가치 실현”



▲ 집수리 전문자원봉사단 교육 '우리 동네 두빛나래'

[경인신문-이광일 기자] 웅진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영흥면 내리에서 영흥지역 봉사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우리 동네 '두빛나래' 전문봉사단 육성을 위한 집수리 교육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.

이번 교육은 우영화 직업훈련교사의 지도 아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추천으로 선정된 독거 노인택에서 벽지 시공 및 방충망 교체 작업 등 현장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.

사전에 집수리 전문교육 참여 신청을 한 10여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벽지 시공에 필요한 도구 및 사용 방법, 시공

방법, 절차 등의 이론교육에 이어 직접 풀칠한 도배지를 시공하는 등 현장 실습을 통해 집수리 활동에 참여했다.

홍득표 자원봉사센터장은 “주민 중심의 전문자원봉사단 ‘두빛나래’의 구성 및 육성,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앞으로도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차 확대해 가려고 한다”고 말했다.



이광일 기자 insky8115@naver.com

저작권자 ©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